

너와 나의 시간,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시간

글. 김성우

본 전시 <sunday is monday. monday is sunday>를 기점으로 뒤를 돌아보면 2016년 9월 로와정의 개인전을 큐레이팅했고, 그 이후 이들과 나누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했수로 2년이 되는 지금, 과거와는 다른 공간에서 이들의 전시를 다시 열게 되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이들과 나 사이의 대화의 양과 질, 양쪽 모두에서 충분히 깊어질 만한 시간이었으나, 지금의 전시 하나만을 주제로 대화하기엔 너무나 많은 각자의 사건들이 존재했다. 사실 서로의 상황은 질적으로 봤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딱히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눈앞의 해결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었고, 미술계 사람들은 데드라인에 강하다는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서로가 쌓아온 나름의 경험과 수완으로 일들을 곧 잘 털어내왔다. 하지만 이런 각자의 시간이 대화라는 이름으로 교차하는 순간에서는 시시각각 발생했던 목전의 급박한 이슈들에 의해 대화의 방향이 하나의 주제에서 다른 쪽으로 급선회하거나 혹은 다른 줄기를 만들며 뻗어나아가기도 했다. 각자의 시간, 그러니까 개별의 선형적 시간에 퇴적된 순간들은 그렇게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비선형적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렇게 시시콜콜한 부연이 붙은 나와 이들의 시간, 큐레이터와 작가의 시간은 어떻게 공동의 시간으로 전시장을 점유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과정에 연루되지 않은 또 다른 이의 시간으로 확장되는가? 이 전시에는, 아니 기능적 측면에서 전시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공간에는 각자의 시간에서 너와 나의 시간, 그리고 서로 다른 그다음의 시간을 촉발하는 몇 개의 상태가 존재한다. 그것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세 개의 시간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짧은, 한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최초의 상태, 그리고 창작의 주체인 작가만의 시간이며 종종 스튜디오에서 이뤄지기에 공개되기 어려운 내밀한 과정으로서의 상태-상황, 마지막으로 전시라는 형식상 최후의 결과로 제시되어야 하는 처음과는 다른 상태이다. 공중에 개방되어야만 전시의 본성상 최초에 드러난 상태는 작품과 전시를 위한 재료가 되며, 그 위에 가장 내밀해야만 하는 창작의 과정이 역설적이게도 전부 개방되며 변화의 추이를 드러내고, 그렇게 다시 최초와는 다른 형태로 어느 시점에서 고정되어버리는 상태, 이 세 개의 시간축이 본 전시의 큰 뼈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축된 뼈대 위에 또 각기 다른 몇 가지 상황이 펼쳐진다. 이 상황들은 위에 언급한 최초의 한시적 상태 위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설정한 규칙과 임무의 완수를 통해, 더 정확히는 그 과정에 내재하는 통제 가능성과 예측 불가능의 영역을 넘나들며 최종의 형태로 나아간다. 이를테면, <구부리기와 펴기>의 경우는 천장에 매달리거나 전시장 기둥에 기대어 선 굵은 합판으로부터 시작한다. 로와정은 굵은 합판에 매일 스프레이로 물을 주는 최소한의 행위를 통해 조금씩 굵이를 달리해 나아가는 목재의 성질에 개입한다. 이것은 마치 작가가 통제해야만 하는 재료의 성질과 그로부터 빚겨 나아가는 물질의 본성에 대한 섬세한 조율의 과정과 같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콜라주 작업 <붙이고 떼어내기>가 있다. 작가는 매일 다른 색깔의 반투명한 종이를 붙이고 떼

어내기를 반복한다. 색깔을 선택하고 붙이는 과정에서는 규칙에 따른 완전한 통제가 가능하지만, 떼어내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남게 된 부분과 우발적인 결함 역시 곧 작품의 일부로 수용되어야만 한다.

여기에 관객의 역할이 필수적인 두 가지의 상황이 추가된다. 이것은 기존의 전시 내에서 행해지는 형식의 전형성에 기초한다. 첫째로, <만담>은 화자와 청자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토크 구조를 따른다. 하지만, 전시에서 다루는 주제나 주요 키워드를 일방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는 기존의 '아티스트 토크'의 형식이나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오히려 전시라는 시간이 있기까지 나왔던 창작자 주변의 이야기들, 즉 일상의 일부이지만 전시의 주변에서 각자의 현재적 시선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지금 이 전시와 무관할 수 없는 몇 가지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진행된 토크이다. 그리고 전시된 작품이나 주제를 향해 추동하지 않는 본 이야기는 곧 청자의 개인사와 맞물리며 조금 더 확장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다른 줄기가 생성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발생한 다른 시선으로부터 이 전시를 바라보도록 의도되었다. 최종적으로 이 만담은 기록되어 세 개의 영상으로 설치된다. 하지만 영상에 이때 현장의 분위기나 서로 다른 두 역할, 즉 화자와 청자가 나누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담기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에 담긴 내용은 화자 중심의 언어적 습관만을 발췌해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습관에 의해 반복되는 동일한 단어의 서로 다른 음률은 하나의 리듬이 되어 고정된다. 또 다른 작업인 <움직임>은 타자의 소리를 안무로, 이 안무에 영감받아 제작한 무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안무를, 그리고 최종 안무의 움직임을 이미지로 기록하여 고정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기록된 사진 이미지에서 실제 퍼포먼스와 그 현장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무대와 무용수의 온전한 몸짓을 고스란히 상기시킬 수 없는, 오히려 방해한다고도 할 수 있는 이것은 퍼포먼스 이후 무용수의 옷을 수놓은 땀의 흔적, 그리고 격렬한 움직임이 남긴 옷의 구김이다. 움직임의 시간은 당시의 순간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정서를 상기시키기 위한 찰나의 인상으로 압축된다. '번역'은 기본적으로 소실과 생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특정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실의 문제는 곧 다른 창조적 가능성을 담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움직임>은 타자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신체 언어로, 그리고 그것을 다시 시각 언어로 해석하고, 다시 또 신체로 번역하며 마지막에 이미지로 고착화되는 연쇄적 번역의 과정이며, 각 단계에서 개별의 행위는 끊임없는 미완의 행위로 번역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는 의미를 생성해내는 '매개'적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를 파생하는 과정 사이에 걸쳐있는 또 다른 하나의 상황이 있다. 그것은 기능에서 또 다른 기능을 왕복하는 오브제가 만들어내는 풍경이다. <테이블>의 첫인상은 합판 위에 섬세하게 선으로 그려진 미니멀한 페인팅이다. 화이트큐브에서 시선을 조용하게 잡아끄는 이 페인팅은 전시 중 필요에 의해 벽으로부터 이탈하여 테이블로 전환된다. 그리고 합판 위의 이미지는 바닥을 바라보게 되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고, 캔버스였던 합판은 곧 테이블의 상

판이 되어 버린다. 이제 관객이 볼 수 있는 것은 테이블 앞에 앉아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작가와 그들이 벌여놓은 창작 과정이 남기는 흔적뿐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리고 찍어내기>는 전시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병풍과 같은 형태의 오브제로서 공간의 한켠을 차지하고 있다. 공간을 점유한 오브제에게 작품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는 전시(장)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볼 때 이 조형물은 이미 조각으로서 어떤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전시의 기간 중 앞으로 만들어낼 판화 작업을 위한 실크스크린용 판에 불과하다. 그리고 결국 전시의 최종 결과로 제시되는 것은 실크스크린 판화이다. 이 두 개의 작업은 작가의 스케줄에 따라 회화나 조각으로 관객을 맞이하기도, 가끔은 기능적 사물, 즉 테이블이나 실크스크린용 판으로 이전의 상태를 감춘 채 특정 기능을 위한 도구가 된다. 기능에서 또 다른 기능으로의 전환은 독자적 논리와 형식을 통해 자율성을 획득한 예술이 곧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물로 치환되어 유용성을 획득한 사물이 됨으로써 예술의 본질과 성립 이유를 뒤튼다.

세 개의 개념적 시간축, 즉 연결된 세 개의 상태와 그 위에서 점점 더 형태를 갖추어가는 (혹은 변형해가는) 여러 개의 또 다른 시간, 상황들. 21일의 기간에 산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길 거듭하는, 혹은 의도적으로 눈앞의 상태를 지워나감으로써 고정된 상태를 거부하는 이 한시적 이벤트들(위에 따로 언급하지 않은 1회의 옥션과 전시의 전/후로 진행됐던 윌링앤딜링의 팟캐스트 아트톡 2회를 포함)은 전시라는 하나의 커다란 시간 안에서 여러 개의 시간을 재차 생산해내며, 재료에서 과정으로, 그리고 결론으로 치닫게 된다. 로와정은 이렇게 하나의 시간대에 여러 개의 동시다발적인 시간이 존재하게 함으로써 본 전시를 의도적인 잡음이 가득하여 단일한 의미로 고정될 수 없는 무대로 상상하고, 전시를 둘러싼 모든 이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록될 수 없는 생산적 가능성이 가득한 시공간으로 전환시킨다. 애써 만들어낸 의미가 시각언어의 본성상 오독을 이끌어내거나, 무의미로 전락하여 버릴 수 있다는 예술의 운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작가는 오히려 의미와 무의미, 정독과 오독의 의도적 변주를 통해 주어진 시간 속 새로운 시간이 틈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과거로 흘러가는 순간의 연속인 현재를 붙잡아 지연시키는 행위이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각자가 경험한 시간들을 어떻게 지금, 여기, 우리의 눈앞에 재배열하여 위치시키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의미와 무의미, 혹은 전혀 상상치 못한 의미의 연쇄는 전시라는 범주 안에서 관객에 의해 이미 스스로의 여정을 출발했을지도 모른다. 작가가 고민했던 독자적 논리는 하나의 시각적 인상 정도로 압축되고, 그것은 관객의 감상에 작용하는 각자의 도구, 즉 서로 다른 지식의 정도와 전문 영역, 개인의 기억이나 경험과 결탁하여 전시의 외연을 확장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전시는 정해진 기간 안에 관객을 통해 종결(또는 완성)되며, 그 현장에서 관객의 관람이란 빠르게 지나가는 찰나의 경험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작가는 이러한 작품의, 전시의 본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관객의 지적 능력과 그들의 능동적 사유를 신뢰하기에 그것을 오히려 시니컬하게 의도적으로 드러내기에 주저함이 없다. 그러므

로 이 전시의 무수한 시간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너와 나,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이며, 이 신뢰 위에 구축된 관계망, 즉 전시는 소실과 생성, 규칙과 불규칙, 기능과 오류, 실재와 상상 사이의 특별한 공간이 된다.

결국, 이 전시는 아마도 앞서 말한 세 개의 축과는 다른 궤도에서, 그러니까 관객의 입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이어붙이는 순간 그 의미를 갱신, 확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전시를 구성하는 몇 개의 시간축, 그리고 그것의 진행과 결론에 대해 논할지라도 이것은 곧 전시를 관람했던 모든 이들 각자의 시간, 기억과 뒤죽박죽 뒤섞여 재편성된 어느 순간, 자리로 새롭게 탄생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시를 해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기획자의 입장에서 언어의 형태를 빌린 사후의 기록이기에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 지면 또한 어느 순간 누군가 (독자)를 만나 새롭게 의미의 관계망을 이어나갈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다시 나만의 시간으로 돌아와서,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나는 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필자와 독자, 전시와 작가와 관객, 큐레이터와 전시의 관계를 생각하며 적당한 시선의 거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글을 도구로 삼기에 지난 시간이나 감각을 어떠한 언어의 온도와 톤으로 다시 담아내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 언어의 틈새로 미끄러져 나가는 감각에 촉을 세워야 하며,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로서 해설의 태도를 조금은 취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동시에 이것이 능동적인 관객의 역할과 태도를 저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며 말이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다시 또 확장될 전시/예술의 효력까지는 이글에 담을 수 없다는 한계를 아쉬워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 이 글을 읽는 그 누군가에게 이 전시는 또다시 몇 개의 미션을 주리라 생각한다. 첫째로, 전시를 본 당신이라면 이 글을 읽으며 그때를 떠올리고 새롭게 감각해보길 바란다는 것. 둘째로, 전시를 안 본 당신이라면 이 글을 읽으며 전시가 발산했던 현장의 감각보다는 언어적 기술 안에서 보다 구체적인 동시대적 의미를 찾길 바란다는 것. 셋째로, 전시를 보았든 안보았든, 이 글에 동의를 하거나 안함으로써 생겨나는 당신의 질문과 의미 도출이 이 전시의 사후를 곧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단초가 되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글로 지난 시간을 하나둘 더듬어가며 주워담는 나 역시 다시금 당시에 존재했던 시간을 미분하여 이 시간과 공간(지면)을 통해 새롭게 의미 지으려 하듯이 말이다.